

## 코로나19로 인한 충남 지역경제 영향 : 자동차산업, 소상공인 분야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 연구추진단 (경제·산업연구실)

충남연구원 김양중 연구위원, 이민정 책임연구원

kyj0509@cni.re.kr, minjoung1006@cni.re.kr

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응 연구추진단 연구팀 중 경제산업의 해당분야(자동차 산업, 소상공인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피해액 추정과 피해상황 모니터링 내용을 정리한 연구임.

### CONTENTS

1.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위
2. 분야별 충남 지역경제 영향
3. 결론 및 제언

### 요약

- ◀ 충남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집적도(LQ지수)는 2.09로 충남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주요 집적지
  - 아산시와 서산시가 충남의 자동차부품산업을 주도
  - 충남의 모든 자동차 기업의 생산이 1주간 중단된다면 우리나라 전 산업의 생산은 1조 280억의 감소가 발생
  - 또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경우 5,701억의 생산감소가 예상되며, 충남의 경우는 4,626억의 생산감소가 예상
  - 수입부품 대체생산을 위한 긴급 운영자금 및 설비투자자금 지원,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자동차부품 중소·중견 기업에 특례보증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충남 내 자동차관련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강화,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의 상생발전 방안 마련 등 필요
- ◀ 충남의 소상공인은 2017년 기준, 전사업체수의 87.7% 종사자의 31.9%를 차지하는 중요한 경제주체
  - 충남의 소상공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체감경기 변화에 대해 나빠졌다 81.2%로 응답(메르스 71.5%보다 높음)
  -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화 변화는 매출액 감소 89.1%가 가장 높고, 방문객/이용객 감소 87.9%로 가장 높음
  - 코로나19에 대해 가장 많이 요구한 지원책은 피해업소/업종의 긴급경영안정 자금 융자 68.5%
  -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 대한 소상공인지원책은 크게 운영자금 지원, 세제지원, 생계지원이 있음. 더불어 고정비용(임대료, 인건비) 절감을 위한 지원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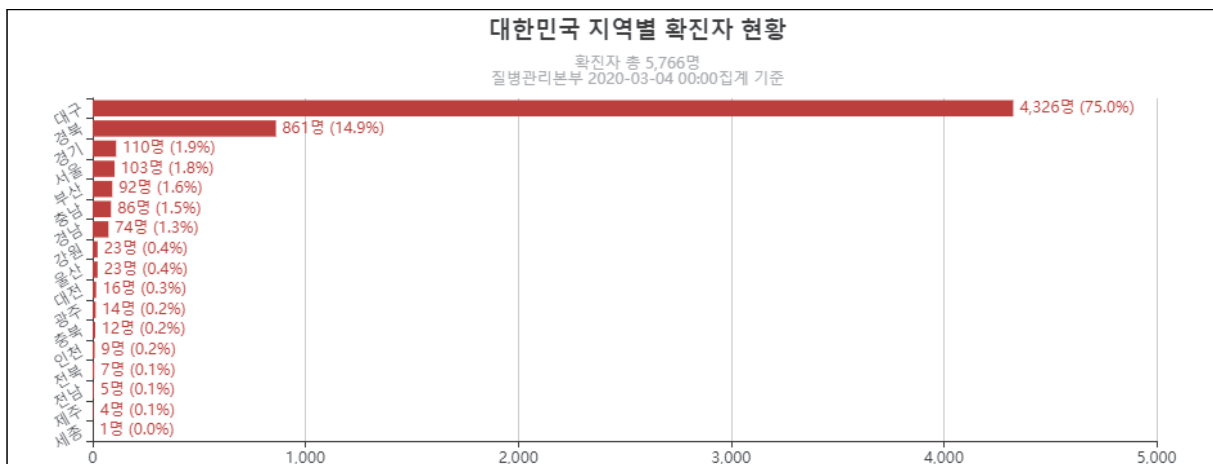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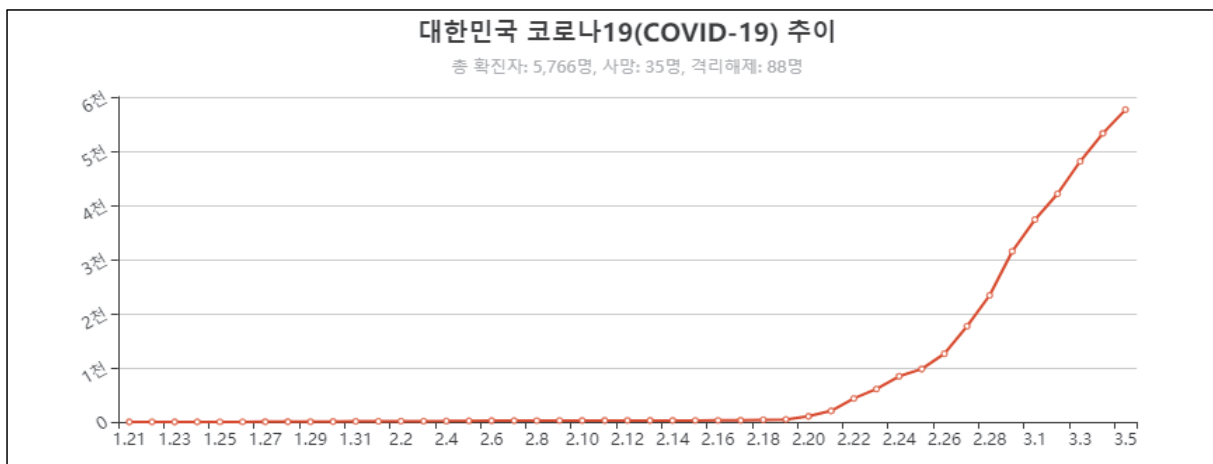


# 01

## 코로나19 발생이후 경위

### 1. 코로나19 발생 및 경위

- 작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최초로 동물-사람 간 전파를 통해 집단폐렴이 유발된 이후, 전세계로 급속 전파 중
  - 2020년 3월5일 기준,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60여개국 89,258명. 사망자수 3,246명
  - 이 중 대한민국 확진자수는 5,766명. 사망자수 35명
  - 중국(80,409명)→ 한국(5,766명)→ 이탈리아(3,089명)→ 이란(2,922명) 순



출처) 코로나19 실시간 상황판(<https://wuhanvirus.kr/>)

[그림 1]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및 지역별 현황

-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경보수준은 ‘심각’단계

- 안정세로 접어드는 듯 하였으나 2월 20일 대구신천지 교인으로 알려진 31번 슈퍼전파자의 등장 이후 3월3일 확진자 5,000명 돌파
- 확진자의 90% 가까이가 대구경북에 집중
- 충남은 2월 26일 계룡시 군부대 입소자에게서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천안시 거주지 춤바댄스 강사인 5번환자 등장 이후 급속도로 전파

[표 1] 국내 코로나19 발생이후 주요 확진 발생 현황(02.20~03.03)

일자	내용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최초로 동물-사람간 집단폐렴 유발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1월19일 입국한 중국국적 여성, 우한시 거주)
	질병관리본부 경보수준 상향 (관심 → 주의)
2020년 2월 20일	대구 신천지 슈퍼전파자 발생 (31번 환자)
2020년 2월 24일	질병관리본부 경보수준 상향 (경계→ 심각)
2020년 2월 26일	확진자 1,000명 돌파
2020년 2월 28일	확진자 2,000명 돌파
2020년 2월 29일	확진자 3,000명 돌파
2020년 3월 2일	확진자 4,000명 돌파
2020년 3월 3일	확진자 5,000명 돌파
2020년 3월 5일	00시 현재 총 확진자 5,766명

자료) 질병관리본부 및 신문기사

## 2. 코로나19 발생후 충남 산업별 대응

- 자동차산업 : 현대차 아산공장 조업중단 (2020년 2월 7일~11일)
  - 중국 춘절연휴 연장(9일까지)으로 중국내 부품제조사의 생산라인 중단
  - 아산시 자동차관련 하청업체 약 400여곳의 피해 우려
- 관광산업 : 3월 축제 취소, 4~5월 봄꽃축제 취소/연기
  - 3월 예정(서천군 무창포 주꾸미.도다리 축제, 동백꽃 주꾸미 축제) 축제 취소
  - 4~5월 예정 36개 축제는 5월이후로 연기 혹은 취소
    - \* 4월 축제 : 계룡산 벚꽃축제, 마곡사 신록축제, 갑사 황매화축제, 해미 벚꽃축제, 태안 세계튠립축제 등 23개로 연중 가장 많음

- \* 5월 축제 : 석장리 세계구석기 축제, 대천항 수산축제, 보령AMC모터페스티벌 등 13개
- 충남지역 축제는 축제, 문화제, 예술제를 포함해 총 106개 (상반기 45개, 하반기 59개, 시기미정 2개)

● 소상공업 : 전통시장 5일장 임시휴장

- 천안시 전통시장 5일장 임시휴장 (2.26)
  - \* 병천시장, 성환이화시장 5일장 대상
- 당진시 전통시장 5일장 임시휴장 (2.26~)
  - \* 당진, 합덕, 신평 등 5일장 대상
  - \* 코로나19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 홍성군 3개 전통시장 5일장 임시휴장 (2.25~3.4)
  - \* 5일장 노점상 대상. 개별점포는 정상영업
  - \* 주1회 전 시설에 대한 방역소독 실시
- 예산군 5일장 임시휴장(3.1~)
  - \* 예산시장, 예산역전시장, 삽교시장, 광시시장, 덕산시장, 고덕시장
  - \* 상황종료시까지

[표 2] 코로나19 관련 충남 주요 일지(01.28~03.19)

일자	내용
1월 28일	우한교민 임시보호시설로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결정
1월 31일	우한교민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입소
2월 7일~ 11일	현대차 아산공장 조업중단
2월 14일	우한교민 퇴소
2월 21일	충남 첫 확진자 발생 (계룡)
2월 25일	천안시 첫 확진자 발생 천안 5일장 휴장 결정
2월 26일	천안시 5번 환자 발생 (쑤바댄스 강사) 아산시 첫확진자 (7번환자) 발생
	도내 축제 취소/연기 결정 (3월축제 취소, 4~5월 축제 취소/연기 결정. 상반기 45개 축제 예정)
	시군 전통시장 5일장 임시휴장 결정 (천안, 홍성, 당진, 예산)
3월 5일	00시 현재 충남 확진자 88명
3월 19일	00시 현재 충남 확진자 118명

자료) 신문기사

# 02

## 분야별 충남 지역경제 영향 추정

### 1. 자동차 산업

#### • 충남 자동차산업 현황

- 충남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이상 사업체는 611개사, 종사자 수는 42,597명, 부가가치는 6.66조원으로 나타남

[표 3] 충남 자동차산업 사업체수

(단위: 개, 명, 백만원)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부가가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611	42,597	6,659,436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5	3,634	2,036,56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23	799	53,080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578	38,082	4,565,223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5	82	4,573

자료) 통계청, 2018년 광업제조업조사

- 사업체수 기준, 전국대비 충남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비중은 12.93%로 나타났으며, 종사자 기준, 부가가치 기준도 각각 12.13%, 12.50%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

[표 4] 전국대비 충남 자동차산업 비중

(단위: %)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부가가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2.93	12.13	12.50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15.15	4.03	8.96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8.46	10.24	6.94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13.21	15.10	15.37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11.63	8.34	6.47

자료) 통계청, 2018년 광업제조업조사

- 사업체수 기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집적도(LQ지수)는 2.09로 충남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주요 집적지라고 할 수 있음

[표 5] 충남 자동차산업 집적도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부가가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09	1.40	1.08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2.45	0.46	0.77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1.37	1.18	0.60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2.14	1.74	1.33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0.11	0.02	0.01

자료) 통계청, 2018년 광업제조업조사

- 시군별로는 아산시와 서산시가 충남의 자동차부품산업을 주도하고 있음
  - \* 현대자동차가 입지한 아산시의 부가가치가 3.49조원, 동희오토가 입지한 서산시가 1.34조원으로 다음 순으로 나타남

[표 6] 시군별 자동차산업 부가가치

(단위: 백만원)

시군	부가가치
천안시	848,403
공주시	38,223
보령시	228,020
아산시	3,488,903
서산시	1,339,772
논산시	30,288
당진시	416,256
금산군	13,139
서천군	1,889
홍성군	23,887
예산군	224,229

자료) 통계청, 2018년 광업제조업조사

- 즉, 충남의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생산거점으로 자동차산업의 위기는 충남의 위기
- 특히 자동차산업이 집중된 아산과 서산의 피해가 크게 나타남

- 자동차산업 수출입 현황

- 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의 총 수출액은 219억불이며, 총 수입액은 50억불 정도로 무역수지흑자는 169억불로 나타남
  - \* 우리나라 자동차부품 수출 1위 국가는 미국으로 대미국 수출액은 56.2억불이며, 중국(27.1억불), 멕시코(15.5억불) 순으로 나타남
  - \* 우리나라 자동차부품 수입 1위 국가는 중국으로 대중국 수입액은 13.9억불이며, 일본(9.1억불), 독일(7.6억불) 순으로 나타남
- 2018년 기준 충남 자동차부품의 총 수출액은 16.3억불이며, 총 수입액은 2.1억불 정도로 무역수지흑자는 14.1억불로 나타남
  - \* 충남 자동차부품 수출 1위 국가는 중국으로 대중국 수출액은 5.8억불이며, 미국(5.2억불), 멕시코(1.0억불) 순으로 나타남
  - \* 충남 자동차부품 수입 1위 국가는 중국으로 대중국 수입액은 0.73억불이며, 일본(0.63억불), 오스트리아(0.21억불) 순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물론 충남의 자동차부품 수입국 1위는 중국
-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부품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면, 충남 자동차산업의 피해로 직결

- 피해추정

- 중국 소재 부품기업 생산중단에 따른 재고 부족으로 현대차(2.4~11일간 공장별 순차적 휴업), 쌍용차(2.4~12 휴업)도 생산 감축
  - \* 현대차의 휴업으로 부품협력사인 현대모비스 울산공장(2.5~11), 금호타이어 3개(광주·평택·곡성) 공장(2.8~9)도 가동 중단(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7)
- 충남의 경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과 서산의 동희오토(주)의 생산중단으로 큰 피해가 예상
  - \* 충남의 모든 자동차 기업의 생산이 1주간 중단된다면 우리나라 전 산업의 생산은 1조 280억의 감소가 발생
  - \* 또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경우 5,701억의 생산감소가 예상되며, 충남의 경우는 4,626억의 생산감소 예상<sup>1)</sup>

---

1) 피해액은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10차 개정 출하액 기준임



[표 7] 충남공장 가동중단으로 인한 피해액 추정

(단위: 백만원, 명)

	전산업	자동차산업	충남 자동차산업
생산 감소	1,027,630	570,061	462,574
부가가치 감소	269,294	128,488	104,984
취업자 감소	4,094	1,347	1,077

자료) 10인이상 사업체 기준

- 아산공장의 중단으로 충남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여겨지며 경기, 경남, 경북, 울산, 충북 순으로 간접 피해가 발생
- \* 후방산업의 피해는 경기의 플라스틱제품과 충남의 철강1차제품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여겨짐
- 또한 경기의 금속제품, 경북의 철강1차제품, 전남의 철강1차제품, 충남의 플라스틱제품, 금속제품, 철강가공제품, 경북의 플라스틱 및 금속제품 순으로 각 산업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남
- 전방산업의 피해로는 충남, 경북, 광주, 경기, 전북, 전남, 서울의 수리서비스산업(자동차수리, 개인수리 등)에서 피해가 예상되며, 충남, 경북, 전남, 광주의 육상운송서비스(여객, 화물운송, 택배 등)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2. 소상공인 분야

### • 충남 소상공인 현황

- 충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수는 2017년 기준 130,756개의 사업체 및 257,572명의 종사자 수로 집계됨
- 도내 사업체의 87.7%, 종사자수의 31.9%를 차지

[표 8] 충남 시군별 소상공인 업체수 및 종사자수 (2017년 기준)

(업체수)

(단위:개)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 서북구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17,541	21,322	6,934	7,090	16,503	9,812	8,395	1,757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9,988	4,740	3,792	3,670	2,249	6,335	5,542	5,0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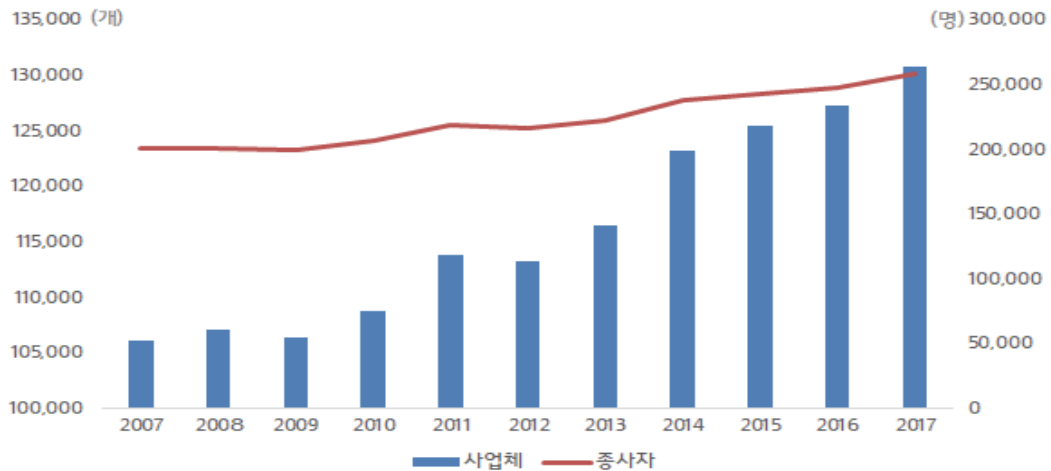
(종사자수)

(단위:명)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 서북구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34,258	43,881	13,961	13,583	35,862	18,540	16,235	3,386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19,292	9,472	6,959	6,570	4,422	12,211	9,698	9,242

출처) 소상공인마당HP 통계정보

- 충남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며(연평균성장률 2.12%), 종업원 수도 동일한 양상을 보임 (연평균성장률 2.57%)



[그림2] 충남 소상공인 추세

- 충남 소상공인의 신규 창업자수 및 창업 증가율은 2014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폐업률 수준은 2017년 기준 14.4%로 전국과 비슷한 추세임

#### • 피해 모니터링

- 2020년 2월5일~19일간 충남 330개 소상공업체 대상으로 1:1 면접방식 설문 모니터링 실시. 총 응답수 330개
- 충남의 소상공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체감경기 변화에 대해 나빠졌다 81.2%, 비슷하다 16.1%, 좋아졌다 1.5%, 잘 모르겠다 1.2%로 대부분의 충남 소상공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체감경기가 나빠졌다고 인식

[표 9] 코로나19로 인한 충남소상공인 체감경기 변화

(단위: 개, %)

	빈도	퍼센트
나빠졌음	268	81.2
비슷	53	16.1
좋아졌음	5	1.5
잘모르겠음	4	1.2
전체	330	100.0

- 체감경기가 나빠졌다는 응답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숙박및음식점업 92.6%, 서비스업 87.8%, 도소매업 77.4%, 제조업 67.5%. 특히 숙박및음식점업과 서비스업은 좋아졌다는 응답이 전무

[표 10] 업종별 코로나19로 인한 체감경기 변화

(단위: 개, %)

업종		나빠졌음	비슷	좋아졌음	잘모르겠음	전체
제조업	빈도	56	21	3	3	83
	퍼센트	67.5	25.3	3.6	3.6	100.0
도소매업	빈도	65	17	2	0	84
	퍼센트	77.4	20.2	2.4	0.0	100.0
숙박및음식점업	빈도	75	6	0	0	81
	퍼센트	92.6	7.4	0.0	0.0	100.0
서비스업	빈도	72	9	0	1	82
	퍼센트	87.8	11.0	0.0	1.2	100.0
전체	빈도	268	53	5	4	330
	퍼센트	81.2	16.1	1.5	1.2	100.0

-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황 변화는, 매출액 감소 89.1%가 가장 높고, 방문객/이용객 감소 87.9%, 계약/예약취소 22.7%, 영업활동 차질(상담, 판촉 등) 18.8%, 내부일정취소(워크숍, 외부출장 등) 8.5%, 영향 없음 1.2%, 기타(부자재 조달 애로 0.6%) 기타(소량구입 고객 증가, 0.3%) 로 나타남

[표 11]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황 변화

(단위: 개, %)

	빈도	퍼센트	응답비율
방문객/이용객 감소	290	38.4	87.9
매출액 감소	294	38.9	89.1
계약/예약 취소	75	9.9	22.7
영업활동 차질(상담, 판촉 등)	62	8.2	18.8
내부일정 취소(워크숍, 외부출장 등)	28	3.7	8.5
기타(부자재 조달 애로)	2	0.3	0.6
기타(영향없음)	4	0.5	1.2
기타(집에서 조리하는 소량구입 고객 증가)	1	0.1	0.3
전체	756	100.0	

-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소상공인들은 공통적으로 위생용품 착용 및 비치 81.8%, 특별히 없음 33.0%, 배달및온라인 영업 강화 16.4%, 영업일/영업시간 단축 15.2%, 임시휴업 3.6% 순으로 응답
- \* 대다수의 소상공인은 소극적 자구책인 마스크, 손세정제 사용으로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복수응답으로 ‘특별한 대처 없이 영업 중’을 응답한 소상공인도 33%로 나타남. 복수응답이므로 “마스크 착용+특별한 대처 없음”과 같은 응답형식으로 파악됨.

\* 코로나19에 대한 사업장 대응지침 등의 안내 강화, 상인회 중심으로 수시점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계도해야 할 것으로 보임

[표 12] 코로나19에 대한 충남소상공인 대처방법

(복수응답, 단위: 개, %)

	빈도	퍼센트	응답비율
위생용품 착용, 비치(마스크, 손세정제 등)	270	54.5	81.8
특별히 없음	109	22.0	33.0
배달, 온라인 영업 강화	54	10.9	16.4
영업일, 영업시간 단축	50	10.1	15.2
임시휴업	12	2.4	3.6
기타	0	0.0	0.0
전체	495	100.0	

- 소상공인이 코로나19에 대한 지원책으로 가장 많이 요구한 지원책은 피해업소/업종의 긴급경영안정 자금 융자 68.5%, 전업종/지역의 신용등급 무관 특례보증 53.6%, 확진자 발생/경유 지역 특별저리 자금 융자 51.8%, 세제지원 42.7%, 전업종/지역에 대한 신보/기보 만기연장 30.3%, 생계지원 26.7%, 전통시장/상점가 특별방역 16.4%, 피해신고센터 설치 10.0% 순으로 나타남.

[표 13] 코로나19에 대한 충남소상공인 희망 지원책

(복수응답, 단위: 개, %)

	빈도	퍼센트	응답비율
피해업소/업종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226	22.8	68.5
전업종/지역의 신용등급 무관 특례보증	177	17.9	53.6
확진자 발생/경유 지역 특별저리자금 융자	171	17.3	51.8
세제지원(납세기한 연장, 징수유예)	141	14.2	42.7
전업종/지역 신보 만기연장	100	10.1	30.3
생계지원(생계비, 아이돌봄서비스 등)	88	8.9	26.7
전통시장/상점가 특별방역	54	5.5	16.4
피해신고센터 설치	33	3.3	10.0
전체	990	100.0	

- 모든 업종에서 피해업소/업종 긴급경영자금 융자를 1순위로 희망
- 2순위는 제조업(세제지원), 도소매업 및 숙박및음식점업(확진자발생/경유지역 특별저리자금 융자), 서비스업(전업종/지역 신용등급무관 특례보증)을 희망

[표 14] 업종별 코로나19 희망 지원시책

(단위: 개, %)

			피해업소/ 업종의 긴급경영 안정자금 융자	전업종/ 지역의 신용등급 무관 특례보증	확진자 발생/경유 지역 특별저리 자금 융자	세제지원 (납세기한 연장, 징수유예)	전업종/ 지역신보 만기연장	생계지원 (생계비, 아이돌봄 서비스 등)	전통시장 /상점가 특별방역	피해신고 센터 설치	전체
업 종	제조업	빈도	58	42	42	44	26	20	6	11	249
		퍼센트	23.3	16.9	16.9	17.7	10.4	8.0	2.4	4.4	100.0
	도소매업	빈도	54	42	45	33	32	18	17	11	252
		퍼센트	21.4	16.7	17.9	13.1	12.7	7.1	6.7	4.4	100.0
	숙박 및 음식점업	빈도	54	43	45	35	17	27	15	7	243
		퍼센트	22.2	17.7	18.5	14.4	7.0	11.1	6.2	2.9	100.0
	서비스업	빈도	60	50	39	29	25	23	16	4	246
		퍼센트	24.4	20.3	15.9	11.8	10.2	9.3	6.5	1.6	100.0
전체		빈도	226	177	171	141	100	88	54	33	990
		퍼센트	22.8	17.9	17.3	14.2	10.1	8.9	5.5	3.3	100.0

## 03

## 결론 및 제언

### 1. 자동차산업

- 수입부품 대체생산을 위한 긴급 운영자금 및 설비투자자금 지원
  - \*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내생산을 위한 운영자금 및 설비투자자금에 대한 정책지원 필요
-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자동차부품 중소·중견 기업에 특례보증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 \*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신용보증지원, 회사채 발행금리 감면, 저리대출 등
  - \* 원청기업의 생산중단으로 유동성 자금 부족에 처한 하청기업의 단기 유동성 자금 지원
- 충남 내 자동차관련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강화
  - \* 자동차부품연구원, 충남 TP 자동차센터 등의 기술인력 및 경영·기술컨설팅 지원
-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의 상생발전방안 마련
  - \* 그동안의 생산위주의 지원에서 탈피하여 지원의 다각화 필요
  - \* 하청기업에 대한 자금, 생산, 판로, 연구개발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
  - \* 충남도 차원에서도 상생발전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상생발전 도모

### 2. 소상공 분야

- 충남의 소상공인 중 81.2%는 코로나19로 인해 체감경기가 나빠졌다고 인식
  - \*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설문에서는 71.5%가 체감경기 악화로 응답하여 금번 코로나19로 인한 체감도가 더욱 심각
  - \* 코로나19 발생 전과 체감경기가 비슷하다는 의견(16.1%)에서는 계속되는 불황에 상당히 지쳐있는 소상공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음
- 충남의 소상공인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감소 89.1%, 방문객/이용객 감소 87.9% 등의 피해를 호소

- \* 업종별로는 숙박및음식점업 92.6%, 서비스업 87.8%, 도소매업 77.4%, 제조업 67.5%가 체감경기 악화를 응답하여 생활밀접업종일수록 체감적 타격이 큼
- 소상공인의 대처방법으로는 위생용품 착용 및 비치 81.8%, 특별히 없음 33.0%, 배달및온라인 영업 강화 16.4%, 영업일/영업시간 단축 15.2%, 임시휴업 3.6% 순으로 응답
- \* 특별한 대처 없이 영업 중이라는 소상공인도 33% 으로 나타나 코로나19에 대한 사업장 대응지침 등의 안내 강화, 점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계도 필요
- 코로나19에 대한 지원책으로 희망하는 지원책은 다음과 같음
  - ① 피해업소/업종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68.5%,
  - ② 전업종/지역의 신용등급 무관 특례보증 53.6%,
  - ③ 확진자 발생/경유지역 특별저리자금 융자 51.8%,
  - ④ 세제지원(납세기한 연장, 징수유예) 42.7%,
  - ⑤ 전업종/지역에 대한 신보 만기연장 30.3%,
  - ⑥ 생계지원(생계비, 아이돌봄서비스 등) 26.7%,
  - ⑦ 전통시장/상점가 특별방역 16.4%,
  - ⑧ 피해신고센터 설치 10.0%
- \* 특히, 우한교민 임시생활시설 수용지역이었던 아산은 피해업소/업종 긴급경영자금 융자지원, 확진자 발생/경유지역 특별저리자금 융자 요구가 강함
- 모든 업종에서 피해업소/업종 긴급경영자금 융자지원을 1순위로 희망.
  - \* 2순위에서는 제조업(세제지원), 도소매업 및 숙박및음식점업(확진자 발생/경유지역 특별저리자금 융자), 서비스업(전업종/지역 신용등급무관 특례보증)로 차이
-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 대한 소상공인지원책은 크게 운영자금 지원, 세제지원, 생계지원이 있음. 금번 모니터링을 통해 충남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지원방향 및 정책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① 특화된 경영안정자금 지원
    - \* 피해업소/업종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 \* 확진자 발생/경유지역에 대한 특별자금 융자
    - \* 관광, 여행, 숙박, 공연 등 관련업종은 관광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
  - ② 일시적 경영안정자금 지원
    - \* 소상공인 대상으로 특례보증 확대 (신용등급 무관)
    - \* 신용보증기금 대출금 만기연장
    - \* 새마을금고의 긴급 신용대출, 공제로 납입유예

③ 세제지원

\* 납세기한 연장

\* 분할고지 및 징수·체납 유예

④ 기타

\* 전통시장, 상점가와 같은 유동인구 밀집장소 특별방역

\* 전통시장, 상점가는 상인회를 중심으로 사업장 대응 지침 홍보강화, 수시점검

\*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및 할인율 일시상향을 통한 지역경제 위축예방 및 조기회복 지원

\* 확진자 발생/경유로 인한 피해업소에 대해서는 생계비지원 등 적극적이고 밀접한 지원

\* 전주시 한옥마을 건물주의 10% 임대료 인하운동, 착한 임대인 운동과 같이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중 가장 부담인 임대료, 더불어 인건비 부분을 절감시킬 수 있는 지원책